

弘報室 : (02)
6050-3602~5

* 이 자료는 4/16(火)자 朝刊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인터넷 등은 4/15(月) 11:00부터

※ 문의 : 글로벌경협전략팀 황동언 팀장(6050-3681), 유종철 과장(6050-3682)

‘新실크로드 중심’ 우즈베키스탄 진출 유망 분야 “농업·자동차·에너지·의료”

- 商議, 15일 ‘국내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방안 보고서’ 발표... 우즈벡 진출 유망분야 제시
- ① 농업 : 우즈베키스탄 GDP 30% 차지... 농업분야 한국의 對우즈벡 수출 1위 품목 ‘비닐하우스’
- ② 자동차 : 한국의 對우즈벡 수출액 중 40%는 ‘자동차 부품’... 한국 브랜드 ‘친숙’
- ③ 에너지 : 우즈벡 전력·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 공동 개발 프로젝트 경험 살려야
- ④ 의료 : 韓 고위공무원 출신 차관 임명... 수입 의료기기, 의약품 관세 면제 혜택도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유망분야 기업 130여개사와 19일 우즈벡 방문... 비즈니스 포럼 개최

新실크로드의 중심이자 新북방정책의 중요 파트너인 우즈베키스탄 진출을 위해 국내기업이 관심을 가질만한 분야로 ‘농업, 자동차, 에너지 인프라, 의료’가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5일 ‘국내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여건과 정책변화를 분석하고, 진출 유망분야를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중앙아시아의 중심인 우즈베키스탄은 유라시아 시장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국가”라며 “외투기업에 친화적이고 주요산업을 육성하려는 우즈벡 정부의 변화는 우즈벡 투자진출에 나서는 국내기업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우즈베키스탄 진출 유망 분야... “농업기자재, 자동차 부품, 에너지 등 인프라 건설, 보건의료” 등

대한상의는 우즈벡의 경제여건과 정책변화에 맞춰 국내기업의 유망 진출분야를 제시했다.

첫째가 농업기자재 분야다. 농업은 우즈베키스탄 GDP의 30%가량을 차지하는 기간산업이다. 현재 우즈베크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줄어든 ‘목화’를 대신해 ‘과일’로 재배품목을 다변화하는 중이다. 또 온실 재배를 장려하는 등 시설농업을 확대하고 있다. 농업분야 한국의 對우즈베크 수출 1위도 ‘비닐하우스’가 차지했다.* 양국 정부는 ‘한-우즈베크 농기계 R&D센터’를 개소하는 등 농업분야 협력에 관심을 쏟고 있다.

* 출처 : ITC(International Trade Center)

〈표〉 우즈베키스탄 진출 유망분야

분 야	주요 정책 및 시장여건
농업 기자재	• (우즈베크) 과일, 온실 재배 등 시설농업 확대 • (한국) 우즈베크와 ‘농기계 R&D센터’ 개소에정
자동차	• (우즈베크) ‘자동차산업 발전 계획(~21)’ 발표 • (한국) 對우즈베크 수출액 中 자동차부품 40%
에너지	• (우즈베크) ‘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 개선’ 발표 • (한국) 타히아타쉬 발전소 등 개발에 참여
보건 의료	• (우즈베크) 수입 의료기가·의약품 관세 면제 • (한국) 前보건복지부 실장, 우즈베크 차관 임명

다음으로, 자동차 부품 분야다. ITC(International Trade Center)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對우즈베크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약 8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40% 수준이다. 국내기업이 1990년대 우즈베키스탄에 중앙아시아 최초의 자동차 공장을 건설하기도 했다. 대한상회는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국내 자동차부품 기업들의 우즈베크 진출이 유망하다고 전망했다.

에너지 등의 인프라 건설도 유망분야다. 우즈베크는 세계 10위권의 천연가스 생산국이지만, 천연가스 의존도가 약 90%로 지나치게 높고 에너지효율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우즈베크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및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전력설비 확충,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화 사업 등의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야 한다. 국내기업은 우즈베크 기업들과 공동으로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 현재도 ‘타히아타쉬 복합화력발전소’ 등 여러 발전소 건설을 진행중이다.

최근 한국 고위공무원 출신을 차관으로 임명하고, 공공 의료 분야에서 양국 정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보건의료 분야 협력 역시 유망하다. 해외에서 수입한 의료기기와 주요 의약품 관세를 면제하는 등 외투기업에 대한 혜택도 많은 점도 유리하다.

- 우즈벡 진출시 환율물가 변동, 이중내륙국으로 인한 高 물류비, 외국기업 진출증가 등 고려해야

대한상의는 우즈벡 진출 시 유의해야할 사항들도 언급했다.

먼저, 환율과 물가 변동이다. 2017년 환율 단
일화로 우즈벡 환율(숨, SUM)은 두 배 가량
오르며 물가가 상승중이다. 이는 소비자의 구
매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아울러 건설
수주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한다.

우즈벡 진출시 유의사항

- √ 환율과 물가 변동 주시해야
- √ 이중 내륙국으로 인한 高 물류비
- √ 유럽기업의 진출로 시장 경쟁 심화

상의는 우즈벡이 ‘이중내륙국’, 즉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른 두 나라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높은 물류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세관에서 품목코
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신규 기기와 물품에 대해 추가적인 등록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우즈벡 행정절차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대비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 유럽기업들
중심으로 우즈벡 진출 증가로 인한 시장 경쟁 심화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19일,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 유망분야 기업 130여개사와 우즈벡 방문 ... 비즈니스 포럼 공동 개최

대한상공회의소는 우즈벡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19일 우즈벡 타슈켄트 우즈엑스포에서
‘한-우즈벡 비즈니스 포럼’을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지난 2014년과 2017년에
도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포럼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
자동차 사장,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김영섭 LG CNS 사장, 임병연 롯데케미칼 대표이
사, 안재현 SK건설 대표이사 등 자동차, 인프라, 의료, 농업분야 기업인 300여명이 참석
할 예정이다. *우즈벡 경제사절단 주요 기업인 명단 하단첨부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양국의 정책 현안과 비즈니스 창출에 대한 방안이 발표되며, 기
업들이 현지 파트너십 구축과 시장 정보를 얻기 위한 1:1 상담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강호민 대한상의 국제본부장은 “우즈베크에는 한국 기업이 오래전부터 진출해 장학사업을 펼치는 등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정부간 다양한 협력사업도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번 양국 정상회담과 비즈니스 포럼이 양국 정부와 기업들에게 새로운 협력 관계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 1> 우즈베키스탄 주요 경제성장 전략

개혁·개방 전략	산업육성 전략	인프라 확충 전략
-공식 환율과 시장환율 단일화 -대외 과실송금 제한 폐지 -세율 통합 및 세무보고 간소화 등 -경제자유특구 확대 운영(19개) -관광 무비자 입국 허용 -해외 수입 의료기기 및 주요 의약품 관세 면제	-자동차 산업 5개년 발전계획(~'21) -섬유방직 산업 발전구상 수립 예정 -관광산업 5개년 발전계획('17~'21) -보건복지 발전전략('17~'21) -디지털 경제발전 방안 마련	-도로교통 인프라 발전사업('17~'18) -2017~21년 상하수도 현대화 사업 -2017~21년 에너지 분야 발전 계획 -2017~21년 재생에너지 발전 및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그램 -2017~21년 수력발전방안 프로그램

<참고 2> 우즈베키스탄 경제 사절단 주요 참가업체 명단

구분	연번	업체명	성함	직함	비고
주관	1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	경제단체
대기업	2	삼성전자	윤부근	부회장	제조/전자
	3	현대자동차	공영운	사장	제조/자동차
	4	현대건설	손준	전무	건설/플랜트
	5	SK이노베이션	김준	사장	제조/에너지
	6	SK건설	안재현	대표이사	건설/플랜트
	7	LG CNS	김영섭	사장	서비스/IT
	8	롯데케미칼	임병연	대표이사	제조/화학
	9	한화파워시스템	조현수	대표이사	제조/압축기
	10	포스코인터내셔널	주시보	에너지 본부장	제조/에너지
	11	KT	박윤영	부사장	서비스/통신
	12	두산 DLI	김정관	부사장	서비스/컨설팅
	13	두산중공업	김성원	부사장	제조/건설
	14	코오롱인더스트리	신상호	부사장	제조/합성섬유
	15	현대엔지니어링	이승철	전무	건설/종합
	16	지에스건설	최문철	상무	건설
	17	대한항공	송성희	CIS지역 본부장	운수/항공
중견기업	18	대원	전응식	대표이사	건설/주택판매
	19	동일토건	고동현	대표이사	건설/토목
	20	삼보모터스	이재하	대표이사	제조/자동차부품
	21	서중물류	류제엽	대표이사	서비스/물류
	22	성우하이텍	이명근	회장	제조/자동차부품
	23	수성엔지니어링	서정훈	전무	서비스/토목건설
	24	신대양제지	권혁홍	회장	제조/제지
	25	알파	이종호	상무	도소매,제조